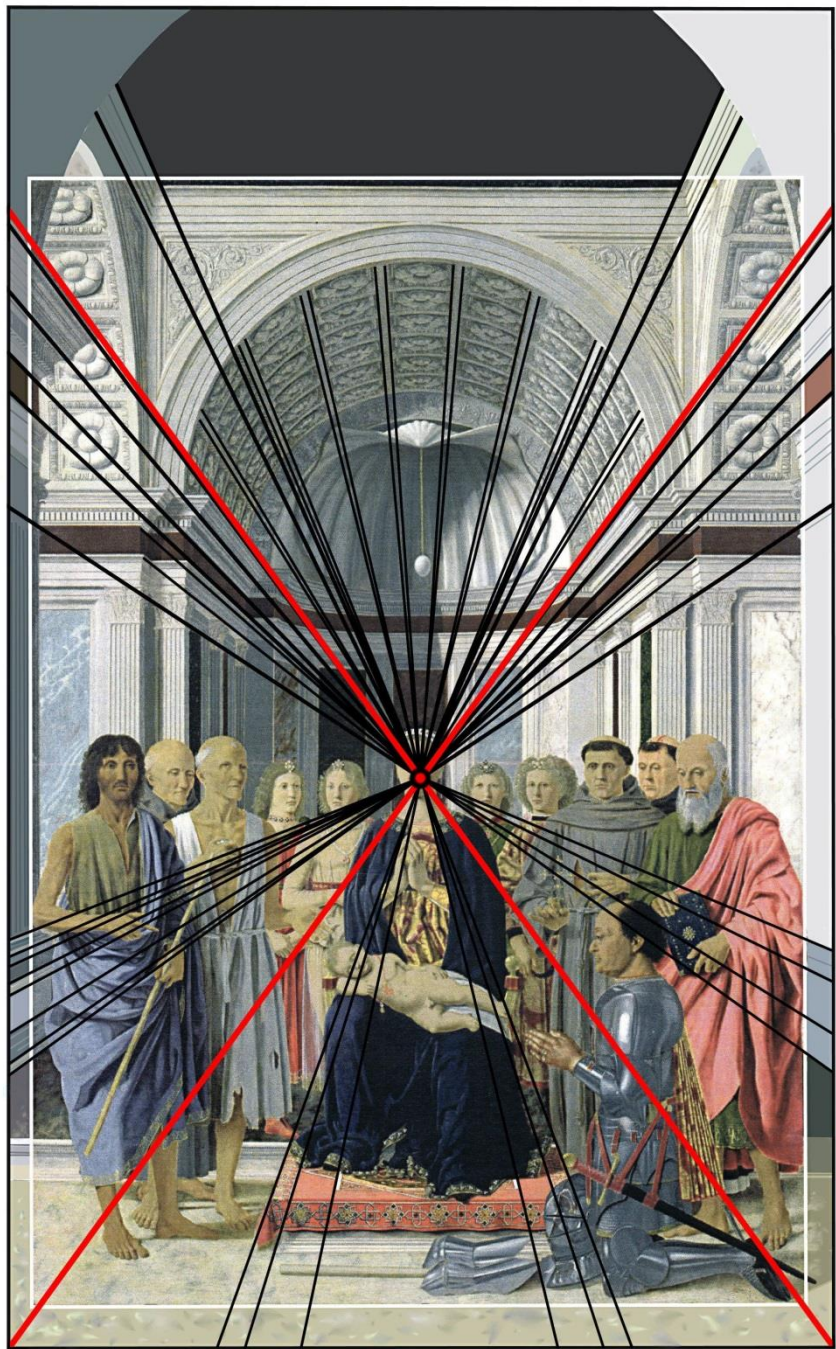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 미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성인들과 함께한 성모자(Montefeltro Altarpiece), 1472-74,
Pinacoteca di Brera, Milan. 일명 브레라 제단화





피에트로 델라 프란체스카, <예수의 책형>, 산 프란치스코 교회, 1470.



a. 15-16세기 피렌체 사회와 정치

1)길드의 정치권력 장악: 시민계급이 권력층으로 등장

2)메디치의 등장

-코시모 데 메디치; 메디치가의 미술후원을 주도함. 투자로서 미술후원을 시작함.

-로렌초 데 메디치(로렌초 일 마니피코): 1469년에서 1492년 피렌체 통치, 메디치가를 시민에서 귀족으로 이끈 장본인.

/베로키오, 기를란다요 등 미술가 공방의 번창: 로렌초와 그 아들 피에로도 미켈란젤로를 후원함

-메디치가는 초기에는 시민의 덕목에 충실해 생업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점차 귀족의 삶에 매료됨.

-마르실리아노 피치노가 주도한 플라톤 아카데미 후원.

3) 신플라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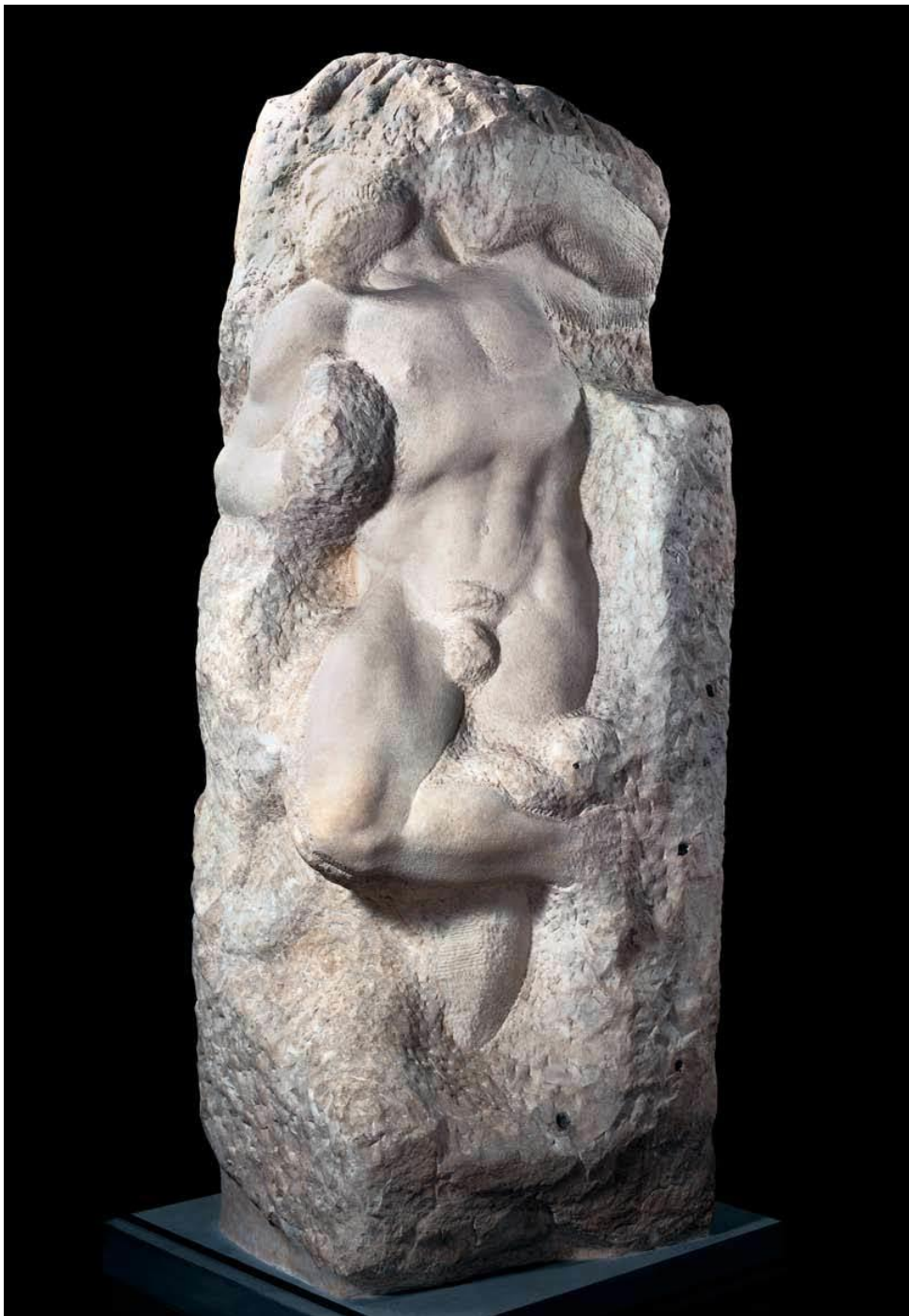
플로티노스가 주창→중세에 기독교와 결합해 기독교 신학으로 이어짐.

/플라톤의 이분법에서 영향 받은 일자(一者)설과 유출설: 세상의 근원은 일자(一者, The One)로 만물은 일자에서 마치 빛이 뿜어 나오듯, 혹은 물이 흘러나오듯 유출된 것이다. 인간도 일자에 근원을 두지만, 멀리 흘러나온 존재로 일자처럼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속성을 간직하고 있고, 자신의 근원인 일자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어, 죽은 뒤에는 결국 일자로 돌아간다.

/피치노는 인간의 창작 능력이 신의 창조능력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작행위가 신의 창조 행위를 닮았다고 주장함⇒미술가의 자부심으로 연결됨.

/신플라톤주의에서 인간의 육체는 일자=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비천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는 점에서 일자-신을 향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됨.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미술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육체를 통해 표현함.→ 미켈란젤로에게 큰 영향을 줌.



미켈란젤로,
깨어나는 노예, 1519-36

b. 15세기 피렌체 미술에서 16세기로

1) 15세기: 일상, 개인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표현

2) 16세기: 절제, 위대함, 일상성과의 결별→휴머니즘의 정착
/‘사실주의 양식’을 ‘이상화된 자연주의’로

-고딕 성향으로의 귀환; 과장과 감정적인 성향

-조각적 특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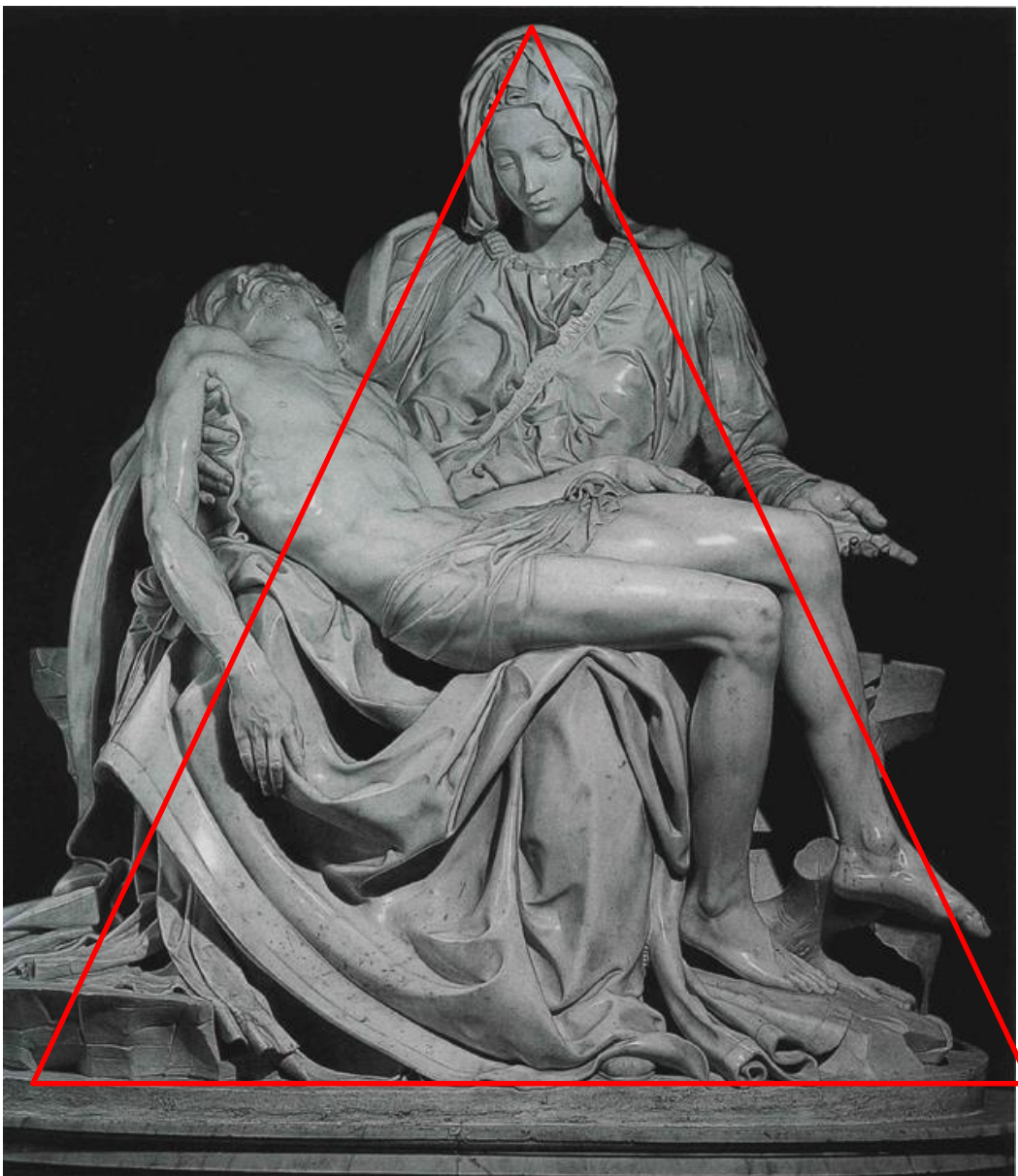
-로마가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함.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회화를 완성해 17세기 바로크를 선도함



미켈란젤로, 피에타, 1499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에타, 1499

*사보나롤라(1452-98)의 등장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장으로 도미니코회 수도사

/휴머니즘과 세속적 삶에 대한 극렬히 반대하고, 중세의 금욕적인 종교 중심 생활로의 복귀를 주장: 종교개혁 성향

/메디치와 당시 교황 알렉산드로스 6세를 도덕적 부패를 이유로 비판함.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피렌체를 침공, 피에로 데 메디치가 망명하자, 프랑스와 협상해, 프랑스군은 피렌체에 무혈입성하고, 사보나롤라는 정치 지도자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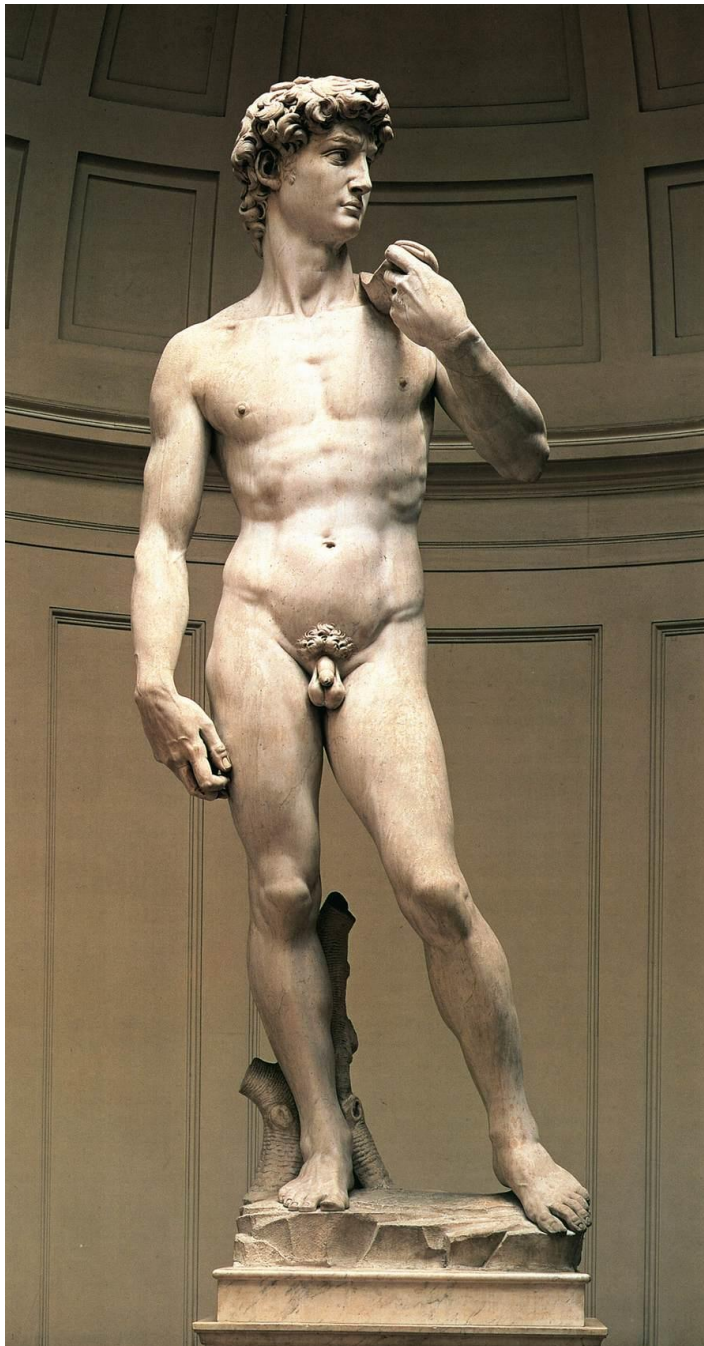
/과도한 신정정치와 전염병의 유행 같은 피렌체의 사회적 혼란으로 위기를 맞게 됨.

/‘허영의 화투볼’: 다수의 미술작품이 사치와 외설과 같은 사악한 쾌락을 조장한다 해서 이를 불태움. 결과적으로 예술작품에 우호적이었던 피렌체 시민의 반감을 사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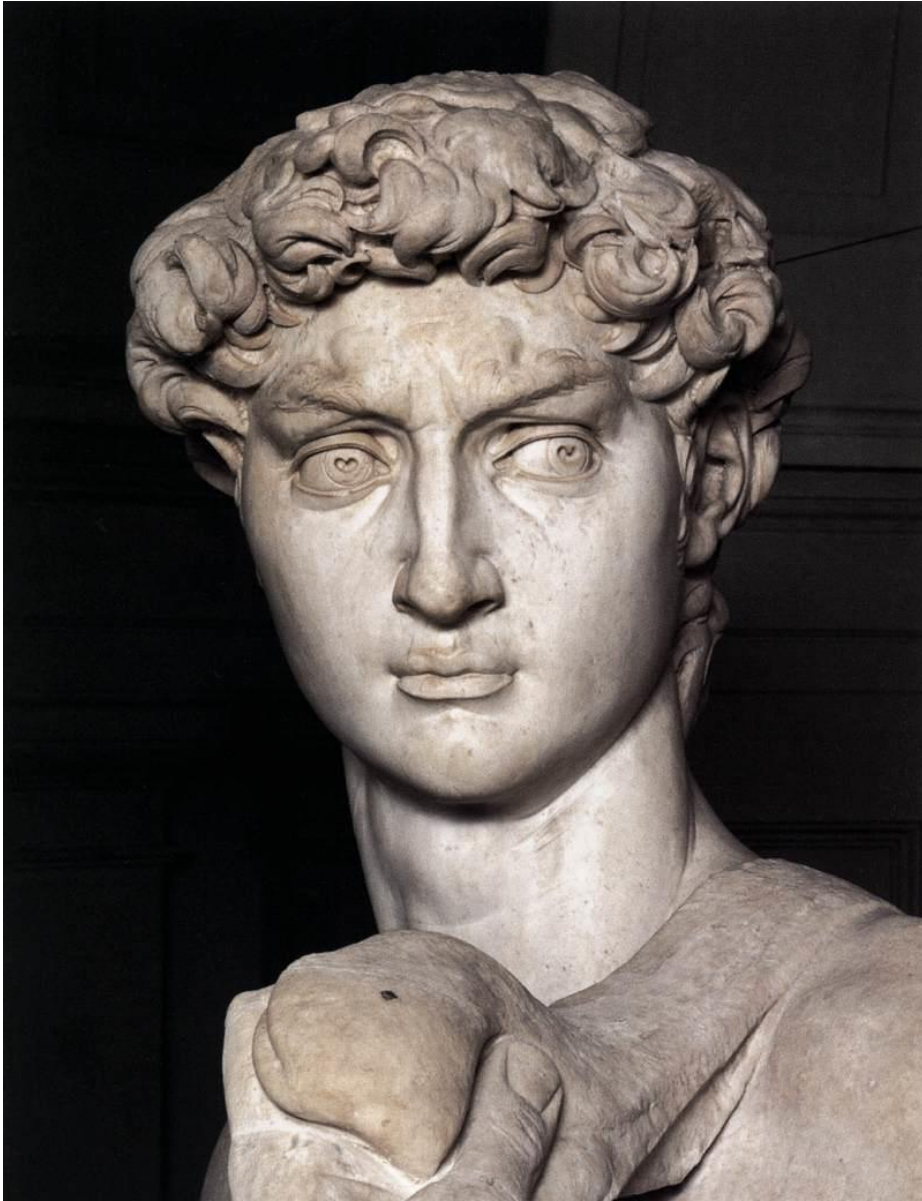
/정치적 반란과 알렉산드로스 8세의 이단 판결로 1498년 화형 됨.

작가미상, 사보나롤라의 처형, 16세기 초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다비드-다윗, 1504년





도나텔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
스, 1457-64, 청동



도나텔로,
다윗, 1420년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다윗,
1473-75